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72

훌륭한 왕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20장,
역대하 29:1~32:23)

남유다 왕국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열세 번째 왕이었죠.

앞선 왕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린
왕도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달랐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아라.
그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셨건만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도,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어떠시겠냐 말이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땅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게 한 뒤
정말 오랜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유월절을 기념했죠.**

남유다 사람 뿐 아니라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까지 말이에요!

우상숭배의 죄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난 뒤, 두 나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시고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그러던 어느 해인가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앗시리아는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였기 때문에
제아무리 히스기야가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성벽을 튼튼히
세워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살고 싶으면 돈을 내나라 히스기야! 이 나라에 있는
금이랑 은은, 모조리 가져오란 말이다! 킬킬킬!”

힘이 부족했던 히스기야 왕은 어쩔 수 없이
산헤립 왕의 말을 따라야 했어요.

왕궁에 있던 금과 은, 백성들이 바친 금과 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입혀져 있던
은과 금까지 벗겨 내어서 앗시리아에 바쳤죠.

하지만 산헤립 왕의 탐욕은 끝이 없었어요!
‘랍사게’라는 부하를 남유다 예루살렘에 보내서는
히스기야 왕이 듣도록 큰 목소리로 외치게 했죠.

**“히스기야! 애송이 군대를 데리고 네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너에게 말 2천 마리를 내어 준들
너의 군대 중에 말이나 탈 줄 아는
병사가 있긴 있느냐? 킬킬킬.”**

이어서 랍사게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아.
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더냐?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
세상 어느 신도 앗시리아의 왕을 이기진 못했다
너희의 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하면
우리가 기꺼이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는 랍사게의 목소리에
히스기야 왕도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서 당대의
뛰어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보냈죠.

“선지자님, 앗시리아 왕이 부하를 보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부디 가엸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잠시후, 이사야 선지자가
신하들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었어요.

**“가서 왕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내일이면 앗시리아의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은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천사가 앗시리아 진영에 나타나서는
20만 명 가까운 엄청난 수의 군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대부분의 군사들을 잃어버린
산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얼마 후 이사야의 말대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해 쓸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큰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 얼마 후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가장 뛰어난 의사들도 왕의 병을 고치지 못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니
이제 그만 모든 걸 정리하라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 두렵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을 남기고 떠나간다는 게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렸죠.

**“주님, 저는 평생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죠.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을 보시고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15년을 더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그게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제 병을 낫게 하실 거라면
특별한 신호를 보여주실 순 없으시겠습니까?”**

놀라서 감격해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중입니다.
자, 저쪽을보면 해가 비쳐 그림자가 생겨져 있습니다.
저 그림자를 각도로 10도 정도 옮겨드리지요.
앞쪽으로 옮겨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뒤쪽으로 옮겨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야... 원래 그림자란 앞쪽으로
나아가는 법이니 저 그림자를 뒤쪽으로
10도 옮겨주신다면 이 기적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태양의 그림자가
뒤쪽으로 10도 이동했죠.**

**매일같이 반복되던 자연현상이
그 순간만큼은 거꾸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히스기야 왕의 병은 개끗이 나았고
그 뒤로 15년을 더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견디기 쉽지 않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큰 고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히스기야 왕을 남유다의 백성들은 많이 사랑하고
존경했답니다!